

43장. 애굽으로 내려가는 예레미야와 애굽의 멸망 예언

1. 애굽으로 내려간 예레미야 (43:1-7)

요하난과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논리를 폈다. 거짓 예언자들은 평안을 전파하였으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을 예언하였고, 그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 그런데도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자’ (43:2)들은 예레미야가 거짓으로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그 땅에 있으면 바벨론에게 잡혀갈 것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와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의 북동쪽에 있는 다바네스(2:16)로 갔다. 그들은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43:4, 7).

2. 바벨론 침략에 대한 예언 (43:8-13)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도 예언자로서 하나님을 섬겼다. 거기에서도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다. 큰 돌을 취하여서 다바네스 바로의 궁궐 문 근처에 두고 진흙으로 그 돌을 덮었다. 그리고 앞으로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침략하고 진흙으로 감춘 돌 위에 장막을 치고, 특히 이집트의 신전을 불사를 것이라고 하였다.

43장 익힘 문제

1. 예레미야가 애굽에 가지 말라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사랴, 요하난과 교만한 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
2. 1) 요하난은 백성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6,7절)
2) 요하난은 예레미야와 함께 누구도 데리고 갔습니까? (6절)
3. 1) 여호와께서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누가 애굽 땅을 칠 것습니까? (9-11절)
2) 그가 애굽을 칠 때는 벤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불을 놓을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12절)